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30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28일 금요일	Issue No.	1730
		Date	February 14, 1969: Fri

파리회담 여전히 성과 없다

(파리 2월 13일 밤, 에이 피) 파리 회담 회담의 제 4 회재가 13일 열렸는데, 정돈상에는 여전히 라게 되지 못했다. 시간도 6시간 10분이라는 여태까지의 회담중 가장 짧았다. 회담후 맞지 미국 수석대표는 "미국은 비밀 회담에의해 사태가 진전할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해방 전선대표단의 일원은 "해방전선의 구정원 유전발표에대해서, 의심으로부터 유전수락의 공식 통고를 아직 받지안코있다" 라고 말하였다.

빈스대표 리임

니슨정권의 신대표단의 중계역으로서 잠정유임중이었던 빈스미차석대표는 제 4 회회담을 최후로 임무를 떠나, 월슈신차석대표와 교체한다.

캐나다와의 외교관계 유지를

미국정부 국부에 요구

(워싱턴 13일 밤, 공동) 미당국자는 12일 "미국정부는 국부에대해서, 캐나다의 북경승인후에도 캐나다와 무슨 형식으로든지 외교관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라고 언급하고, 이문제에 국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를 요망하고있는것을 명백히하였다.

이 "무슨 형식으로든지의 외교관계"는, 영사관 또는 총상대표부의 재주를 의미하는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국부측은, 중공이 캐나다에 국부파의 단교를 요구할것으로보고있으며, 만일 고려치안코, 국부가 캐나다재주의 국부계중국인의 이익보후를위해 영사관을 남겨두드라도, 중공은 후에 국부가 퇴거하도록하는 공작을 할것을 경계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한편 미국당국자는 북경이 미.중 회담에서 대만문제에대해서 의미있는 발언을 할것인지 주목하고있다. 만일 북경이 대만문제도 의미있는 태도를 취하고, 국부의 재캐나다영사관 존속을 복인한다면, 금후의 북경승인에 새로운 영태가 나타나는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에 통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외교측은 지금 미국이 기대하는데도 일이 진행되는것에는 비관론이 강하다.

국부와의 관계는 애매, 캐나다 외상담

(오라와 13일 밤 공동) 샤르프 캐나다 외상은 12일의 하원에서 의회시, 중공파의 국교수립 때 문에, 캐나다가 국부파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부정하지안었다. 샤르프 외상은 만일 북경정부가 캐나다에대해서 국부파의 외교관계단절을 요구하는것을, 중공파의 국교수립의 정속을한다는 캐나다의 공작이 정지할것인가에대해서는 회담을 피하였다.



(동경 2월 13일 밤, 에이 피) 일본-미국의 원간담회가 동경에서 열렸는데, 이에 참가한 에드먼드-마스키 상원의원 (민주당, 메인) 등 일행은 13일, 일본 4대정당과의 일련의 회담의 최종 회로서 일본사회당감부와 회담하였다. 일본에 있어서의 반미운동의 선두에는 정당과의 회담이라서, 오기나와-안보리사회-기지문제를 사하고, 양자의 의견이 충돌, 재일미군기지의 직시 그리고 일방적인 철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서드론 미국측은, 자리를 차고 일어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일본말을 잘 아는 하와이주선출의 스마-크-마스나카하원의원 (민주당-하와이)이 "동역이 부정확하다. 사회당의 실제의 주장은 "상호교섭을 통해서, 풀수있는데도 속한 철퇴를 희망한다" 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결과 회담이 속행되어, 활발하고 때로는 배열한 의결코원이 있었다. 중공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당은 중공의 승인, 국련참가와 국부의 퇴거를 주장하였는데, 미국측은 "절근에는 오히려인데, 국부들 이생으로 할수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놀랄만한 경험이었다

"놀랄만한 경험이었다" 라는것이 회담을 뜻낸 일본-미국 사상방의 감상이다. 크리 워드-케이스상원의원 (공화당-뉴저지) 담... 민주당-공화당 양당의원이 모다, 일본복귀이전의 단계에서 오기나와의 미군기지철퇴를 요구하는 사회당의 태도에는, 가까이 걸어갈수없는 한력 성도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시바시-하사쓰구 일본사회당국제국장담...이 쪽의 솔직한 발언에 미국측은 놀랐고, 충격까지 받은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안보조약이 될수있는데도속히 폐기될것을 희망하고있는데, 그것은 폐기까지에 몇년이 걸려도조라는것은 아니다.

켄네디 상의원 암살범 용의자가 유죄 신고 ?

(라성 12일 밤, 에이 피) 라성-타임스가 전하는바에의하면, 고 라버트-켄네디 상원의원의 암살범인 혐의자 셔-한-셔-한 (24세)은 그의 무죄신고를 유죄로 변경할지도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지는 셔-한-셔-한은 11일 피고와 그의 가족과 이점에 대해서 회담하였다고 보도 하고있다. 셔-한재판은 린칸탄생일의 휴정후 23일에 재개, 변호-검찰진의 진술과같이 제1회 증언도 있을 모양이다.

캐나다의 중공승인 동향에 미국 우려
중공승인 확대를 견제

(워싱턴 2월 12일 밤 동동) 미국정부는 11일, 캐나다의 북경승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으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경승인국의 확대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무성대변인은 동일, 샤-드-캐나다외상의 대북경접촉개시성명에 대해서 질문을 담하고, 직접 논평을 피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부의 입장에 주는 영향을 우려하고있다. 미국정부는 캐나다정부와의 접촉을 계속하고있으며, 캐나다정부는 미국의 의견, 전해를 잘 알고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미국 중공 회담은 20일에

라자-스-미국무장관은 전주밤, 20일 일사외에서 재개되는 미국-중공 회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중공문제를 검토하고있는데, 미국무성대변인선명은, 국무성에서 심중이 검토한후에, 백악관 승인을 얻은것으로 보인다.

중공의 태도

현재, 워싱턴에서 우려되고있는것은, 캐나다에 이어, 이태리, 베리기, 뚝센버-그가 따르는것이다. (제3면에 계속)



(제 2편에서 계속)

이때문에 미국당국은 가을의 극렴총회에 있어서의 중국대표권문제를 년두에 두고 정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동시에 미당국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공의 월사외에서 리 태도이다. 북경은 권주 오판다중국일시대리대사의 미국당면문제로 미국정부에 심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의 미당국자는 (1) 이들은 닉슨대통령에의 직접공격을 심중이 미아고있다. (2) 미국보다 소련을 더 공격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장래의 유연성에의 길 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북경이 월사외에서 강경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 정부의 중국정책이 급우 점점 "두개의 중국"으로 기우터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직시 전면 반환을 결의하라"

오기나와 문제로 7인위가 요청문

(동경 2월 12일 밤, 동동) 세계평화연구소 7인 위원회의 가야세이전통대학장, 도모나가 전통경교육 대학장등은 10일 오후, 국회를 방문하고 이시이종의 원의장에 "오기나와문제에 대해서, 본오의 동포에 호소한다" 라고 제목한 호소문을 수도하였다. 이 호소문은 "백병기의 철거를 포함하는 오기나와 시정 권의 직시전면무조건반환을 취지하는 결의를 국회의 권회일치로 채택하여달라" 라는 내용으로, 8일 정도에서 결의되었다. 동위원회의 이야기에 의하면, 7인 위원회의 덴바중 유가외이메기바사는 10년전, 아와바다.야스나리씨는 7, 8년전에 각각 오기나와를 방문하고, "오기나와의 비극"을 확실히 보고있으며, "우리는 오기나와의 현상을 어찌케라도 하지만으면 단된다" 고 결의, 이번의 호소문을 제출하였다고 말하였다.

닉슨대통령의 서버-린 방문 계획 무변경

(후로리다주 키-비스펜 10일 밤, 에이피) 씨구라미대통령보도관은 10일 키-비스펜에서 "서독의 대통령선거방해때문에 동독은 서버-린에의 여행제한을 실시하였는데, 닉슨대통령의 구라파방문 여행계획중 서버-린을 방문하는 예정에는 아무 변경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거대한 보잉 747 항공기

첫 시험비행에 성공

(와싱톤주 에버렛 2월 10일 밤, 에이 피) 와제의 "잡보.젯트기 보잉 747"의 제 1회 시험비행이 9일 와싱톤주의 에버렛의 페인 필드비행장에서 열렸다. 490명의 여객을 운송하는 거대한 기체는 엇디디실히 가볍게 공중에서 올라갔다. 이날의 비행에는 전제장지계통등의 시험을 목적으로 앞 것으로, 예정의 비행시간은 2시간반이었는데, 워델비행사 (45세)는 도중에서 날개의 배치부정을 발견, 시간 15분으로 정지하였다. 그러나 워델비행사의 실감으로는 이 "작은 불비"를 제외하고는 잡보.젯트기는 "이상적"이었다고 말하였다.

비행기의 크기와 성능

2천만불을 써서 완성한 보잉 747는 현재 취항중의 초대의 젯트기의 2배반이나 되는 대형여객 기로, 시속 625마일도, 6천마일을 스지안코 날른다. 연방항공국의 엄밀한 조사를 장시간에 걸쳐 받은후, 금년말 각항공 회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리상적인 비행기

워델비행사담...비행사에게는 "꿈의 비행기"이다. 조종은 대단히 쉬우고, 두 손 두턱으로 가볍게 조종할수있다. 747는 거의 혼자서 화살같이 날러준다.



